

주름만이, 죽음만이

· 구나연 미술비평 · 이미지 작가 제공

아티스트 Artist

Yeom Jihye

염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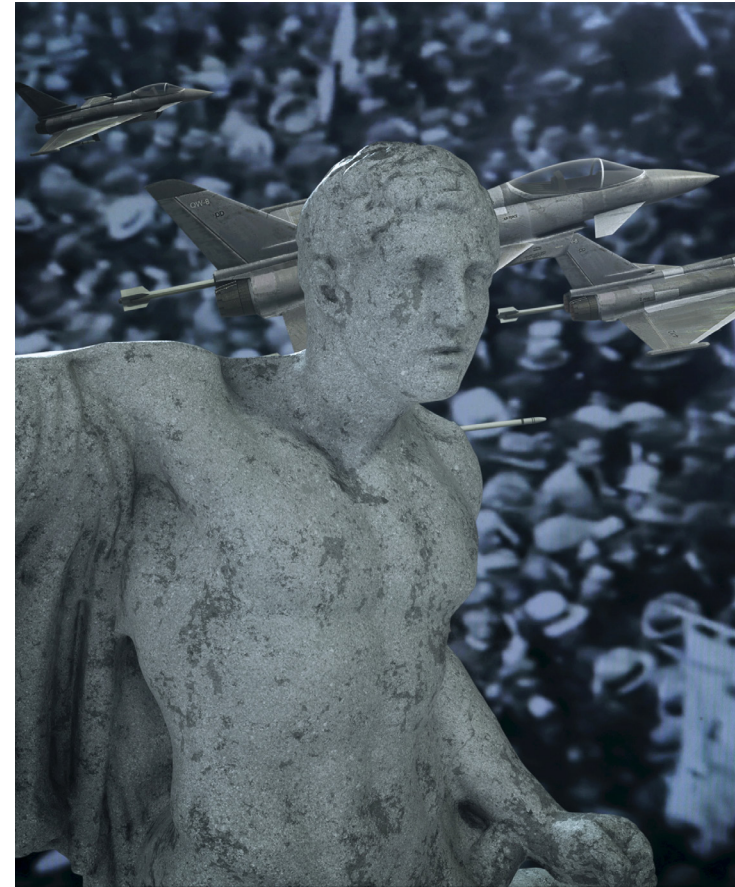
살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었어

이 글을 쓰는 지금, 연일 뉴스를 통해 타전되는 미국 LA 산불은 보름이 다 되도록 진화되지 못하고 있다. 악명 높은 서부의 강풍을 타고 무섭게 번지는 화마가 수많은 주택을 집어삼켰고, 이제는 도심까지 번질 기세이다. 화석 연료에서 뿜는 불을 동력 삼아 맹렬한 공업화와 산업화의 버튼을 한시도 끄지 않았던 인간에게,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불은 그야말로 불행한 파괴와 죽음과 닮았다.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는 인류세의 불이 “이중 죽음의 대리자, 혹은 계속성 죽이기일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것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말한다. 불의 이중성은 풍요와 공포를 동시에 지닌 채, 자본과 자연의 주요한 객체로 인간의 질서에 개입한다. 만일 인간의 불과 자연의 불 사이의 균형이 깨진다면, 그래서 인간의 불이 계속 지퍼지기 위해 자연이 파괴되어야 하고, 그 파괴된 자연의 불이 인간의 종속을 위협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이중의 죽음이며, 인류세의 질서는 무언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이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그 파괴가 다시 인간의 파멸로 되돌아 오는 이중의 죽음은 인류세가 종속되어 있는 자본과 자연의 이중 질서에 부여된 일방성에서 기인한다. 염지혜는 인간이 만들어온 이 같은 일방적 질서에 내재한 불균형, 즉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세계관의 자기 파괴적 상태와 위험성에 주목하고, 지구의 모든 존재 간의 공생과 연대를 제안해 왔다. 그리고 2024년 12월 금천예술공장에서 선보인 개인전 <마지막 밤>과 오는 3월 30일까지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 열리는 <2024 타이틀 매치: 홍이현숙 vs. 염지혜_돌과 밤>은 멈춤 없는 일방성을 고수한 인간 종이 맞이하게 될 파국의 서사를 담는다.

<그들이 온다, 은밀하게, 빠르게> (They Come, Swiftly, Stealthily) > 2016 싱글채널 비디오 15분 15초
<모든 관점 불특정> 전시 전경 2018 대구미술관 © 김상미



<불 습작(Study for Fire)> 2023 캔버스에 유채 116.8×91cm
<2024 타이틀 매치: 홍이현숙 vs. 엄지혜_둘과 밤> 전시 전경 2024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 김진술



<미래열병(Future Fever)> 2018 싱글채널 비디오 17분 10초

그의 영상 작업 <마지막 밤>(2024)은 종말의 도래를 늦추고자 집요하게 붙잡은 “지연(delay)”에의 갈구가 실패한 후 맞이하게 된 시간을 보여준다. 그 시간은 자연의 주름에서 생성된 개체와 직각/직선의 기계적 개체 간의 대립과 반목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주름이 가득한 얼굴로 습곡에서 나타난 인물은 “만일 지금이 이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면 어떡하나?”라는 질문을 품은 채, 마지막 밤을 희미하게 밝힌 타오르는 불길에 지구의 모습을 찢어 넣는다. 어둠 속에 지펴진 불은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의 말처럼, 선과 악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모두 품었기에, 마지막 밤의 도래와 이를 지연시켰던 인내의 양가적 상태 속에서 어른거린다. 그리고 인간을 뛰어넘는 효율과 효용으로 움직이는 기계는 일렁이는 불길 앞에서 파멸을 향한 가속의 운동을 내달린 끝에 홀연 바닥에 나뒹군다.

주름과 기계로 덮인 두 등장인물은 엄지혜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위기에 대한 메타포이자 자본과 자연의 대립적 양상이 초래한 마지막 밤이라는 극단의 아이러니를 가시화한다. 그것은 자연에 대한 몰아세움을 기본 태도로 하는 근대적 자본의 형성과 개발의 증식, 그에 따른 생산의 포화와 강력한 기후 환경의 위기, 인간이 만든 시스템에 도리어 인간이 종속되는 기술적 딜레마의 연쇄 작용 속에서 우리가 예기할 수 있고 또 직면하게 될 인류 종말의 이미지가 된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평온한 수평선의 끝에서, 마지막 밤을 향해 내달리던 속도는 멀어지고, “주름만이, 죽음만이, 가속을 멈출” 수도 있다는 이중의 지연을 상기시킨다.



<미래열병(Future Fever)> 2018 싱글채널 비디오 17분 10초

다. 인류세의 종말로 인한 죽음이기보다, 인류세의 자각을 통해 접은 촘촘한 주름으로 붙잡아야 할 마지막 밤이 바로 오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서두에서 다급히 갈구했던 “지연”, 즉 마지막 밤을 늦추고자 하는 ‘지연’이 연대의 주름 혹은 인류의 죽음에 대한 간곡한 성찰과 마주칠 때, 소멸의 파국으로 돌진하던 무빙 이미지의 순차적 시간이 둥근 나선형을 그리는 순환의 시간으로 변화한다.

한편 그의 또 다른 영상 작업 <한낮의 징후>(2024)는 밤과는 반대로 밝고 투명하다. 그것은 숲과 물과 돌과 생명체가 감지할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우주적 물질의 상태가 반응하는 징후를 한낮의 시간 속에 엮는다. 불현듯 나타난 푸른 가재는 숲이 내는 음향을 들으며 유유히 몸을 펼치고, 비 온 뒤 습한 대기의 기억을 환기하며 땅에 뿌리를 내리는 물구나 무중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변화와 변곡을 인지하는 신체의 예민한 감각과 숲속의 불안한 징후는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밤이라는 사건을 암시하며 어느새 깊고 넓은 물속으로 푸른 가재를 몰아낸다. 그렇게 어디로 흘러갈지,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한 채, 한낮의 징후는 끝없이 마지막 밤을 맴돌게 된다.

<마지막 밤> 전시에서 엄지혜는 낮과 밤이라는 시간의 흐름, 불에서 불로 이어지는 경로를 설정한다. 시간 기반 이미지가 침예한 현실과 교차하며 나타나는 동선 그리고 불이 지닌 선악의 동시성을 오가는 동선은 우리의 느슨한 발걸음과 맞물리며 현재 진행형에 잠재된 미래의 징후를 감각하도록

록 유도한다. 더욱이 이 역동적 흐름에는 엄지혜의 회화 작업, 엘 그레코(El Greco)의 목시론적 잔상, 구원의 이미지로 된 주름진 사진, 『마지막 밤』이라는 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간의 속성이 개입한다. 예컨대 그의 회화는 자연과 자본, 지속과 파국의 양가적 상태 속에서 우물쭈물하는 우리의 모습을 닮았다. 또한 여러 명의 필자가 “마지막 밤”이라는 공통의 문제의식을 공유한 동명의 책은 오늘의 세계가 지닌 취약한 현재와 그 속에서 발견되는 미래의 목시론을 고찰한다. 이것은 <마지막 밤>에서 엄지혜가 다루어 온 영상이라는 중추적 형식에 대한 탐닉과 의문을 바탕으로, 낮(밤)에서 밤(낮)으로, 또 불에서 불로의 시간을 역류와 환류의 역동적 상태로 탈바꿈하려는 태도와 관련된다.

따라서 무빙 이미지의 선형적 시간을 보다 능동적인 시간의 서사로 접

근하려는 그의 시도는 <마지막 밤>이라는 전시 자체를 거대한 주름으로 만든다. 엄지혜에게 ‘주름’은 파국을 향하고 있는 시간의 지연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난 내재적 물질 하나하나의 접힘이 이어져 생성된다. 겹겹의 주름은 인류라는 종만을 위한 세계가 아니라, 지구라는 행성이 품은 모든 존재와 엮어 내는 거대한 직물이 된다. 주름의 잇기와 엮기 속에서 현재 안에 은폐된 것들을 탈은폐시킬 수 있는 이미지의 가능성이 나타난다. <마지막 밤>에도 등장하는 조르주 디디-위베르만(Georges Didi-Huberman)의 말처럼, 이것은 깊은 광산 안에서 폭발을 감지하는 카나리아의 깃털이 지닌 예지의 능력과 유사한 이미지의 힘이다. 엄지혜의 작업은 현재를 잠식하고 있는 위험의 인자들을 직시하고, 이것을 이미지의 힘으로 환원하여 우리 앞에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마르틴 하이데



<마지막 밤(The Last Night)> 2024 싱글채널 비디오 25분



<한낮의 정후(The Midday Symptoms)> 2024 싱글채널 비디오 17분



<분홍돌고래와의 하룻밤(A Night with a Pink Dolphin)> 2015 싱글채널 비디오 21분 37초 <모든 망명에는 보이지 않는 행운이 있다> 전시 전경 2015 아트선제센터 프로젝트 스페이스 © 김상태

거(Martin Heidegger)가 『기술에 대한 물음(The Question Concerning Technology)』(1954)에서 언급한, 예술과 미술을 지칭하는 것으로서의 테크네를 떠올리게 한다. 시각 기술의 강력한 현현인 무빙 이미지는 ‘기계’라는 근대적 산업화의 결과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또한 어두운 광산과 같은 현실에 은폐되어 있는 폭발의 위험을 감지하는 탈은폐의 이미지가 될 수 있다. 마치 “선과 악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모두” 품은 불처럼, 엄지혜가 제안하는 이미지의 시간은 “위험이 있는 곳에는 그러나/구원의 힘도 함께 자라네”라는 프리드리히 뢰를린(Friedrich Holderlin)의 시구와 닮았다. ^{PA}

[참고문헌]

- Donna Haraway, *Staying with the Trouble*: 최유미 옮김, 『트러블과 함께하기』, 마농지, 2021
- Gaston Bachelard, *La Psychanalyse Du Feu de Gaston Bachelard*: 김병욱 옮김, 『불의 정신분석』, 이학사, 2022
- Georges Didi-Huberman, *Sentir le grisou*: 이나라 옮김, 『가스 냄새를 감지하다』, 문학과 지성사, 2023
- Martin Heidegger, *The Question Concerning Technology*: 이기상 외 옮김, 『강연과 논문』, 『기술에 대한 물음』, 이학사, 2008



© 엠컬렉티브

작가 엄지혜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영국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대학교(Central Saint Martins)와 골드스미스 대학교(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에서 순수미술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난해 개인전 <마지막 밤>(금천예술공장)을 열고, 그룹전 <예술과 인공지능>(울산시립미술관), <접속하는 몸: 아시아 여성 미술가들>(국립현대미술관), <제9행성>(서울시립 남서울시립미술관) 등에 참여했다. 그의 작품은 피노 컬렉션(Pinault Collection), 국립현대미술관, 대구미술관, 리움미술관, 미술은행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신작 <마지막 밤>은 3월 30일까지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다.